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교회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세우는 구역회가 오늘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구역회 참석 대상자는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당회서기, 감사, 각 부서장, 선교회 총회장, 기관 대표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준비된 위임장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구역회 관계로 오늘 청파성서학당은 쉽니다.

선교회별 모임이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4-25일 팀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24-25일에 열립니다.

: 각 부서를 위한 교회 네트워크 시스템 (NAS) 교육이 25일 오후 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과 총무 참석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폭력적 기질의 사라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삼상 3:1-10 / 시139:1-6 고전 6:12-20 / 요 1:43-51
--

눅 12:4-12
-----------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애순 김경혜 최숙화 광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린 이소혜 박유경 김성우 강세기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떡 대 접 : 박석희 조항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주님, 이 세상에는 약자를 향한 강자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손길 아래에서 어리고 약한 생명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주님, 어린 생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약하고 여리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강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그들 속의 거친 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둠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맑은 빛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며, 새로운 세상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고속이	구명자	국지연	김경혜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선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시영	김애경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혜경	김정화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현	김철수	유영남	김향자
김혜영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문복순	문홍일	박미연	박시내	박영희
박옥식	박용진	김용원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방민배	배삼순	백묘현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서원금	성지현
송인선	심상숙	안길상	이형숙	안정숙	양상철	박재란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유선	이응석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정은	이주경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이한림	김명희	임영	정경례
장근성	박희순	장미경	정두리	정선희	정영례	정영린	정영우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정현모	정현선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조항범	오현정	차혜심	노미향	최숙화	김정길
최은미	최종원	최철수	곽권희	한완식	임정자	한훈식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 <약정>

강민철	이혜정	강영님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근중
장옥영	김대근	최종미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인걸	문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정주	김정미	김정훈	이진영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김현주
남인자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박성례	배재경
이수정	서정순	송형운	하미림	신영희	신진식	변해정	심해성	안세진
안종일	정현주	오재형	임고운	유상진	유은정	윤석철	장혜숙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계월	이우상	이광재	이국노
김민화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승지	이윤석	박안수	이인범
공재량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임창선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최미자	한상익	정영선
허성호	진은혜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홍소형	홍춘숙		

### 감사헌금

곽새롬	구성실	김경수	김숙현	김태정	김홍기	박미연	송인선	유상진
유은정	유환희	은종인	이정은	임명희	임주빈	최현옥	정예빈	차혜심
하덕규	김유경	홍성식	이유리	무명19				

### 녹색꿈헌금

장근성 박희순 무명2

마음으로 읽는 글

# 국수가 먹고 싶다

-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정신없는 분주함과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만을 따라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벗어버립니다. 날마다 부질없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구역회	수요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선교회	수요저녁성경연구 / 강의 : 김재홍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정민 권사	이진영 집사 서정순 집사

1	영접위원	하현철 임주빈 권순 최현옥 고숙이 김순자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 황금률

훌륭한 전쟁 지휘자는 호전적이지 않으며,  
훌륭한 전사는 충동적이지 않으며,  
가장 뛰어난 정복자는 절대로 공세를 취하지 않는 자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는 그들을 겸손하게 대접한다.

군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 그들은 반사적으로 군주에게 저항하기 때문에 폭군은 제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오직 마지막 방책으로써만 무력에 의지한다. 승리주의, 쇼비니즘 혹은 공격적 애국주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 행위를 온화하게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적은 이루어 으스대지 않으며, 목적을 이루되 압박하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되 오만하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사용할 뿐이며, 목적을 이루되 강제로 군림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오직 통치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인이 되려 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는 위협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인 ‘나 우선’의 공격성을 통제해야만 한다. 그 첫걸음으로써 언어의 부적절함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만 하며 진정한 성찰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주의와 탐욕을 억누르는 데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만 한다. 슬기로운 통치자는 자신의 원칙을 거드름피우며 내세우지 않는다. 백성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려 노력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기적인 습관을 극복한 사람이다.

커다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나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자아만큼이나 천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자아만큼이나 천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하를 건넬 수 있을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최후의 승자로 떠오른 인물은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무자비하게 공격적이었던 진나라였다. 하지만 결국 노자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진나라의 잔학하고 억압적인 정책들은 209년에 민중 반란을 촉발시켜 왕조가 제대로 발전하기도 전에 멸망하게 만들었다.

적을 향해 절제하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늘날 세계를 소용돌이치게 하는 공격과 반격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가 아힘사(비폭력)의 윤리도 촉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토라에서는 제한적인 복수를 허락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복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디는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는 온 세계를 장님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악한 사람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 대고, 네 걸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 카렌 암스트롱, <카렌암스트롱 자비를 말하다>(돋을새김) 중에서